

# 起亞産業(株)

## '83優秀特許管理業體 金賞受賞

調 査 部

### 自動車技術 世界수준

(株) 起亞産業(代表 金善弘)은 特許管理를 발 명과 기술개발에 가장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정평을 받고 있다.

起亞産業은 지난 79年 管財部 산하 特許課를 기업의 정책방향 결정부서중의 하나인 기획관리 담당이사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기구개편을 단 행, 特許管理를 기업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10여年の 特許실무경험을 쌓은 기계업계 工業權 베테랑인 金善奇 과장을 비롯해 人文系와 理工系 출신들로 균형을 이룬 특허관리전담팀을 구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工所權업무의 법률적 및 기술적 측면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트럭·소형버스 및 特裝車 生産메이커인 起亞 산업은 79年 직무발명제도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제안제도와 TQC 활동등을 통해 우수한 고안을 특허출원하는등 전체사원을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시켜 발명과 특허를 연결·운영해오고 있다.

起亞산업이 지난해 5月 제7회 뉴욕國際發明品 전시회에서 영예의 그랑프리(大賞)를 차지한 '자동차 제동 油路조절장치'는 起亞의 자동차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증거이자 지속적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同社의 축적기술이 이룬 結晶이다.

이 장치는 언덕을 오르다가 정차한 자동차의 재출발시 엔진이 꺼지거나 後進하는 현상을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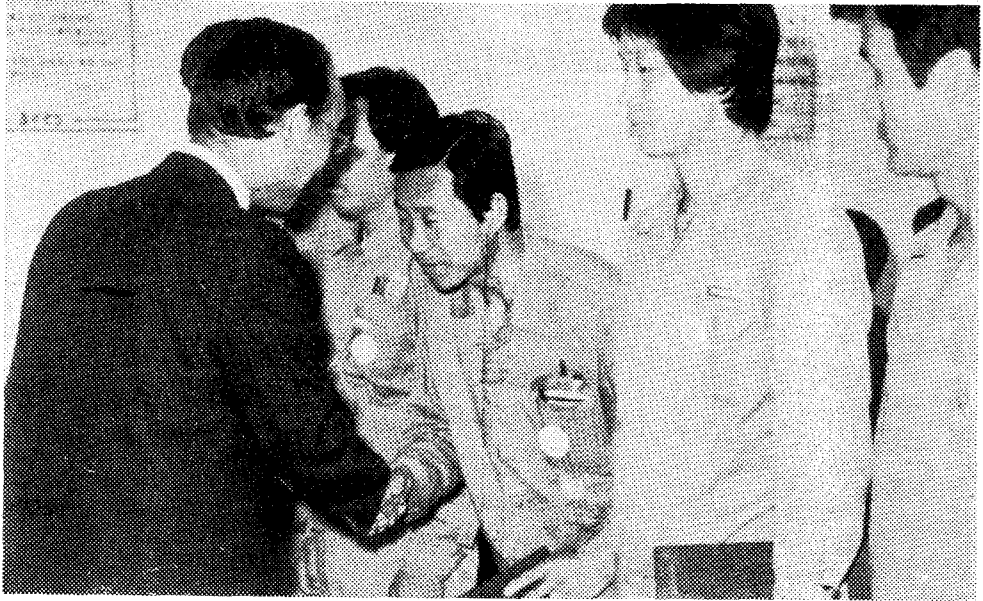
전히 해소시킨 발명품으로서 자동차 사고방지와 미숙련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起亞産業은 세계적 성능의 자동차 생산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대단위 中央기술연구소 연건평 4천평를 所下里 자동차 공장내에 신축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87년까지 6백5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자동차계열 5개社에 각종 특허정보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起亞産業 특허팀은 과장과 대리의 관리직 2명(상표·의장 담당)과 기술직 2명(특허·실용신안 담당)등 6명으로 조직, 출원과 등록 심판 및 분쟁관리, 계약관리 권리감시 및 의의신청, 정보관리 및 교육·적무발명위원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海外기술제휴 및 기술도입시 특허문제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 工所權 185件 保有

지난 78년 日本에서 도입한 10만여건의 특허정보자료를 비롯, 공보류·전문기술도서·工所權관리자료·정기간행물·社內기술보고서·제품 및 설비캐탈로그등 744,054件的 방대한 특허기술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起亞産業에서는 현재 일부 특허출원업무를 電算處理하고 있으나 건설중인 中央기술연구소 부설 電算센터가 완공되는 84년 이후 특허관리업무를 전면 電算화할 예정이다.



◎ 社内 職務發明 發表大會에서의 優秀發表者 褒賞 ◎

起亞産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관리조직을 중앙위원회(위원장 社長)와 분임위원회(위원장 공장장)로 二元化, 중앙위원회는 工所權과 對外기술판매에 관한 기본정책, 특허권의 양수·양도·실시허여·처분·직무발명규정의 운영을, 분임위원회는 특허요건여부·직무발명요건여부·보상금 심의결정지급·발명자 이의신청심의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同社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출원보상 5만원, 등록보상 1백만원, 실적보상 50만원이상(3회에 한함)이며 획기적 발명의 경우 발명품 판매가격의 1%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난 73年 발명특허협회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起亞産業은 현재 1백85건(國內 1백8건, 外國 77건)의 工所權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원건수는 총 4백35건(國內 93건, 外國 3백42건)에 이르고 있다.

### 全社員 特許教育 實施

특허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社内교육으로는 工所權 기본교육과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 그리고 신입사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발명 특허협회등이 주최하는 社外교육과 海外연수

교육에 특허전담자와 연구개발부문 담당자는 물론 중역을 직접 파견, 교육결과를 기업운영에 반영시키고 있다.

起亞産業은 지난해 특허관리 우수업체 金賞을 비롯, 우수발명 대상(82年), 신기술 대상(83年) 등 발명특허관련 수상은 물론 정밀공업진흥탑(82年) 수상등 수많은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기체공업의 정상에 올라서야 한다는 창업주의 정신아래 기체공업한 분야에만 정진해온 起亞産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 수년간에 걸친 흑심한 자동차산업의 불황을 극복하는 한편 國內 자동차 업체중 최초로 '트랜스미션'플랜트의 對印度 수출을 실현했다.

外國技術의 단순한 모방 연구만으로는 격심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起亞産業은 창조기술개발에 도전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보호를 겨냥해 특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金善奇과장은 밝혔다.

자동차의 燃料費절감, 신소재개발, 공해문제 극복등을 핵심연구과제로 선정, 이에 필요한 최신연구기자재와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한 金과장은 獨自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특허관리강화가 엔지니어 출신 기업인인 同社 金善弘 사장의 확고한 경영 방침이라고 전했다. ☞